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제5호

■ 2 성폭력피해유아진료거부에 대한성명서 ■ 3 종합성폭력피해지원센터 필요 박금자 ■ 4 언론소속의 위기센터 ■ 6 기획 1 성폭력피해자의료지원실태와 대책 김현정 ■ 8 기획 2 여성의 힘으로 ■ 10 2003년 상반기 상담통계 ■ 12 양성숙 경찰청은성직·표창원 ■ 13 행사특집 ■ 15 2003 위기센터연간사업 ■ 16 기획특집 사회적책임은누의 것인가 ■ 17 함께하는가림 경찰간부가 되어 성폭력 문제해결에 앞장설 터! ■ 18 함께하는가림 제1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마치고... ■ 19 기획특집 NO! 해주 OK! 피해자가 줄 ■ 20 자문위원 ■ 22 신간도서 ■ 23 후원단위

2003년 5월7일 네살된 유아가 성폭력 당한 후 35시간이 지나서야 진료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진료 및 진단서 발급 거부, 경찰의 관할구역 등을 이유로 피해를 당하는 아동이 적시에 보호받고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전체 성폭력의 24%('2002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사회적인 문제이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피해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한국성폭력 위기센터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 법률, 상담 등 모든 조치가 즉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폭력피해자 지원 종합센터를 구축하라.

(성폭력피해자 우선처리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진료 및 신고 과정에서 두 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한다.)

2. 각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여성폭력 의료지원센터를 확충하라.

(여성부 지정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는 전국7개에 지나지 않으며 상담과 진료, 법률 등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곳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가 유일하다.)

3. 전국 국공립 병원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

(성폭력피해자의 45.8%가 의료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단서 발급시 증거부족으로 발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59.8%에 달한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지원시스템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4. 아동성폭력의 경우 경찰에 접수된 즉시 관할구역과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성폭력피해에 대한 경찰의 신고접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확보가 지연되고, 피해자의 신고 및 대응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5. 의료인들의 진료거부, 진단서 발급거부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진의 참고인 진술을 서면으로 가능하게 하라.

(참고인의 서면진술도 법적효력을 갖도록 하여 의료진 및 관계자들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